



○농림수산식품부, 내년도 예산 14조 5천억원 확정

농어업 분야 지원사업비 금년대비

3.1조원 증액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소관예산(기금)의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 5,16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수정 제출한 14조 8,961억원(본예산 대비 3,802억원 증)을 국회가 심사하여 조정한 것이다.

- 금년(추경제외) 13조 9,549억원 보다 4.0%(5,612억원) 증가
- 2008년도 사업비 중 한·미 FTA 유보(3,801억원), 쌀 변동직불금(2,538억원) 불용액을 제외시 전년대비 9.0%(1,951억원) 증가

금년도 예산 국회에서는 고질적으로 불용되어 온 사업을 심층 심사하여 그 삭감 규모가 전년(983억원)에 비해 비교적 큰 폭(3,801억원)으로 확대되었다.

그 삭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매년 출하기 전국산지 쌀 값(10월~익년 1월)기준으로 편성 되는 쌀 변동직불금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측가격 149천원/80kg 보다 높은 155천원이 유지됨에 따라 소요예산(3,000억원)의 감소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한·미 FTA 체결 이후 예상되는 피해품목에 대한 지원 사업비 중 예산안 편성 당시는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지금까지 비준 동의를 지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내년도에 집행에 무리가 있는 사업의 일부(3,222억원)가 감액 조정되었다.

또한, 재정에서 직접 융자해 왔던 농업종합자금(1,830억원)을 농협자금으로 대체하여 이차보전(31억원)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정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규사업으로 초년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된 해외농업개발(510억원)·240억원, 한식세계화(200억)·100억원, 시군유통회

사(366억원)·220억원 등이 삭감되었다.

반면, 증액된 사업의 내용을 보면, 일자리창출 및 계속 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680억원을 증액(2008년)19,491억원(2009년 정부안)21,294억원(국회조정)21,923억원을 지원키로 하였으며, 내년도 경제여건상 농업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이 예측됨에 따라 금년까지 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해 농지매입자금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해당농지에 부착된 시설물을 포함하여 매입(1,200억원)·1,450억원하도록 250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농가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화학비료가격의 인상분에 대한 지원을 당초 내년도 상반기 물량(944천톤)에서 하반기 물량(305천톤)을 추가하여 지원(1,140억원)·1,508억원키로 했다.

그밖에 수협 경영정상화(433억원)·733억원, 연안 어장 환경정화(193억원)·384억원과 송아지생산안정지원 등 축산분야(1,990억원)·2,514억원)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총 3,327억원을 증액하였다.

특히, 김치 종주국으로서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김치연구센터 설립을 위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30억원을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금년도 한·미 FTA비준 동의와 관련 유보된 30개 사업 3,801억원이 비준동의 지연으로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서 내년도 대상 사업비(3,360억원) 중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되는 12개 사업 1,987억원은 집행유보에서 제외하여 유보를 최소화함으로써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확정된 예산과 기금사업의 총지출 규모(14조5천억원)는 정부 예산안 편성시기와 국회 심사시점 간의 시계열상의 오차를 시정, 쌀변동보전직불금(2008년)3,677억원(2009년)677억원, 한·미FTA관련 피해보전 및 폐업직불·축사시설현



대화(2008년) 2,543억원○(2009년)1,935억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농어가경영부담의 완화 화학비료지원(2008년)402억원○(2009년)1,508억원, 친환경비료(2008년)1,128억원○(2009년)1,869억원, 송아지생산안정(2008년)148억원○(2009년)641억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2008년)414억원○(2009년)819억원,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등은 재정에서 직접지원하고,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저리의 시설 설치·운영자금 등은 농수협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어업자금의 유동성(7.9조원○9.4조원) 농업종합자금 : (2008년) 1.1조원○(2009년)1.8조원, 사료구매자금 : (2008년)1.5조원○(2009년)2.5조원, 영어자금 : (2008년)1.5조원○(2009년)1.9조원, 농축산경영자금 : (2008년) 3.1조원○(2009년)3.6조원을 확보하고, 이를 위해 재정에서는 이에 따른 이차를 보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농어업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 2008년대비 5,612억원(4.0%)증가분에 이차보전으로 내년도 증액되는 농수협자금 융자사업비를 감안시 실질적 농어업 융자지원 자금 2.6조원이 추가되어 그 증가율은 22.1%에 이르는 국가재정증가율을 상회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규모보다 농어업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주어진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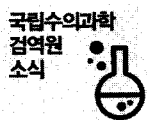
아울러, 내년도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서 가예산 배정제도를 활용하여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정 조기 집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시대 한국, 일본, 중국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사전 4권, 총 1,673 쪽을 번역 출간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소장하고 있는 자료중 1937년 일본수역조사소에서 발행한 일본가축전염병예방사를 국역한 「가축전염병예방사」는 1868년~1937년까지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우역, 탄저, 구제역 등 당시의 가축질병 방역상황을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가축질병 예방법, 검역규정, 가축방역 및 검역기구 등 근대수의학의 변천사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특히 1930년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자료는 현대에도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고증자료이다. 2007년 출판한 「우역혈청제조소 연보」와 「수역혈청제조소 보고서」, 「요람」 등의 국역총서에 이어 일본고어로 쓰여진 원문을 현대 국어로 번역하고, 수의학분야 원로들이 감수하여 출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근대 가축전염병 및 가축방역 연구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출판된 「가축전염병예방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자도서관(<http://lib.nvrqs.go.kr>)에서 누구나 손쉽게 검색하여 이용 할 수 있도록 일본어 원문과 국역문을 동시에 전자책(E-book)으로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앞으로도 수의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근현대 수의학관련 역사자료들을 국역화하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소식

◎ 1930년대 우리나라에서의 가축
질병 방역은 어떻게 했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일제강점

농촌진흥청
소식



◎ 농촌진흥청, 농민단체 및 소비자
단체와 함께하는 '사랑의 천사
김장 나누기 행사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12월 18일(목)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구내식당(수원시 이목동)에서 “사랑의

천사(1,004포기)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고 김장을 담가 인근지역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 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는 이웃사랑 실천에 적극 앞장 서고 있다.

이번 행사는 김장소비를 촉진하여 올해의 배추 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농가의 고통을 분담하는 한편,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 청장과 전 직원들이 자율 모금한 성금으로 배추와 김장재료 등 우리농산물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날 이수화 청장을 비롯한 농촌진흥청 직원 및 직원 가족과 농민연합 윤요근 회장, 생활개선중앙회 조희숙 회장 및 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등 50여명이 함께 참여해서 손수 담긴 김장김치 1,004포기는 인근지역 독거노인 및 결손가정 70세대와 시립노인전문요양원(수원시 파장동) 등 사회복지시설 3개소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김장 나눔 행사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배추 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김장김치가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 모두가 즐거운 연말을 함께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문의】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안미자 ☎031-240-3522



◎ 축산자조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향 모색

축산자조금 토론회 12월 15일 마사회 대강당에서 개최

농촌경제연구원은 축산신문과 공동으로 12월 15일 마사회 대강당에서 축산자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식에서 박동규 농업관측센터장은 현 자조금 운영의 미미한 문제점이 있

다고 말하며, 오랜 운영경험이 있는 미국의 축산자조금제도를 참고하여 축산자조금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당부했다.

정찬진 미국오콜라호마주립대학교 교수는 ‘미국 농업 자조금 운영 현황 및 발전 방향’ 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정 교수는 ‘미국은 초창기에 임의자조금제도로 출발했다가 현재는 의무자조금제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27개 품목은 임의자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양돈, 한우, 낙농은 의무자조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고 말하며, 양국의 자조금 운영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또 “미국의 자조금은 연간 8억불 정도를 조성해 국내의 시장에서의 수요증대를 목적으로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조금은 평가에 치중하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사용방법과 시장 개척을 위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토론이 열려 김민경 건국대 교수, 남호경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박종수 충남대 교수, 석희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장, 윤상익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승호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허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팀장이 토론을 하였다. 많은 토론자들이 현 자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조금 운영 단체들은 토론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더욱 내실있게 자조금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